

매일 미사 전례 독서

2014년 9월

신심 미사 새로운 여인 성 마리아

제1독서 <나는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린 것을 보았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5나

나 요한은 ¹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²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³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 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⁵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이사 61,10 그라드르비.11; 62,2-3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마리아님, 당신은 정의가 넘치는 새 땅이옵니다.

<이어지는 찬가는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의로움의 겹옷을 돌려 주셨네. ◎
- 땅에서 새순이 돋고, 정원에서 싹이 솟아나듯, 주 하느님은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
-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이 친히 지어 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린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이 되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새로운 여인 성모 마리아, 영광 받으소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서 태어나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6-38<또는 요한 2,1-11>

그때에 ²⁶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²⁷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²⁹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³⁰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³¹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³²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³³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³⁵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³⁶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든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³⁷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³⁸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일 연중 제22주간 월요일

제1독서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1-5

¹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니다. ²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³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⁴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⁵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97.98.99.100.101.102(◎ 97-γ)

-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제가 당신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 가르침을 묵상하나이다. ◎
- 당신 계명은 영원히 저의 것. 그 계명 저를 원수보다 슬기롭게 하나이다. ◎
- 저는 당신 법을 묵상하기에, 어느 스승보다 지혜롭사옵니다. ◎
- 당신 규정을 지키기에, 어느 노인보다 현명하옵니다. ◎
- 당신 말씀을 따르려, 온갖 악한 길에서 발길을 돌렸나이다. ◎
- 당신이 저를 가르치셨기에, 당신 법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알렐루야.

복 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6-30

그때에 ¹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¹⁷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¹⁸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¹⁹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²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²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²²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²³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 할 것이다.” ²⁴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²⁵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²⁶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²⁷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²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²⁹ 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³⁰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

제1독서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10-16

형제 여러분, ¹⁰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¹¹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¹²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¹³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¹⁴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¹⁵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¹⁶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8-9.10-11.12-13ㄱ,13ㄴ-14(◎ 17ㄱ)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불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복음 환호송

루카 7,16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31-37

그때에 ³¹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³²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³³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³⁴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³⁵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³⁶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이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³⁷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3일 수요일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제1독서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받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1-9

¹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²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었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³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⁴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⁵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⁶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⁷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8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샅을 받을 뿐입니다.

9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12-13,14-15,20-21(◎ 12나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
-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땅에 사는 모든 이를 지켜보신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빚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속속들이 헤아리신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 기뻐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신뢰하네. ◎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38-44

38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39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40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41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2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4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44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4일

연중 제22주간 목요일

제1독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18-23

형제 여러분, 18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19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20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21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22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23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4(23),1-2.3-4ㄱ,5-6(◎ 1ㄱ)

-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복음 환호송

마태 4,19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1

¹ 예수님께서 겔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²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³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⁵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⁶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⁷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⁸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⁹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¹⁰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¹¹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5일

연중 제22주간 금요일

제1독서 <주님께서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4,1-5

형제 여러분, ¹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²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³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⁴ 나는 잘못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⁵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7(36),3-4,5-6,27-28ㄱ,39-40(◎ 39ㄱ)

- ◎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 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네 마음이 청하는 대로 주시리라. ◎
- 주님께 네 길을 맡기고 신뢰하여라. 그분이 몸소 해 주시리라. 빛처럼 네 정의를 빛내시고, 대낮처럼 네 공정을 밝히시리라. ◎
-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너는 길이 살리라. 주님은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 버리지 않으신다. ◎
-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 그분은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그들도 신랑을 빼앗기면 단식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3-39

그때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³³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³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³⁵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³⁶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 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³⁷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³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³⁹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6일

연중 제22주간 토요일

제1독서 〈우리는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4,6-15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⁶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나와 아폴로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알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⁷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 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⁸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 두고 이미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⁹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¹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¹¹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¹²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 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 내고 ¹³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

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¹⁴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¹⁵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17-18,19-20,21(◎ 18 참조)

-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망을 채우시고, 그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 주시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지키시고, 죄인들은 모두 없애 버리시네. ◎
-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영영 세세에. ◎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알렐루야.

복 음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5

¹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²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³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⁴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⁵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7일
연중 제23주일

제1독서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3,7-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너 사람의 아들이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9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5(94), 1-2.6-7ㄴㄷ.7ㄹ-9(◎ 7ㄹ과 8ㄴ)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프리바에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8-10

형제 여러분, ⁸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⁹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¹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2코린 5,19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⁵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¹⁶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¹⁷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¹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¹⁹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²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8일 월요일

한가위

제1독서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22-24.26ㄱㄴㄷ

²² 들짐승들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²³ 시온의 자손들이야,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 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 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 준다. ²⁴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확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흐르리라.

26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7(66),2와 47,5과 6,7-8(◎ 7)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㉑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4,13-16

나 요한은 ¹³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¹⁴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¹⁵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¹⁶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시편 126(125),6

-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¹⁵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¹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¹⁷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¹⁸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¹⁹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²⁰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²¹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9일

연중 제23주간 화요일

제1독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6,1-11

형제 여러분, ¹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²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³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⁴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⁵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 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⁶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⁷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 주지 않습니까? ⁸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⁹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

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¹⁰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¹¹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9,1ㄴㄷ-2.3-4.5-6ㄱ과 9ㄴ(◎ 4ㄱ)

- ◎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
-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 치고 비파 타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
-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5,1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서는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2-19

¹²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¹³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둘을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¹⁴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¹⁵ 마태오, 토마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¹⁶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¹⁷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

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¹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¹⁹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0일

연중 제23주간 수요일

제1독서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7,25-31

형제 여러분, ²⁵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²⁶ 현재의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²⁷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²⁸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²⁹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³⁰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³¹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5(44),11-12.14-15.16-17(◎ 11ㄱ)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화사하게 한껏 꾸민 임금님 딸이, 금실로 수놓은 옷에 싸여 안으로 드는구나. 오색 옷 단장하고 임금님께 나아가는구나. 처녀들이 뒤따르며, 동무들도 오는구나.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당신 아들들이 조상의 뒤를 이으리니, 당신이 그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으시리이다. ◎

복음 환호송

루카 6,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알렐루야.

복 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0-26

그때에 ²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²¹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²²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²³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²⁴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²⁵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²⁶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1일

연중 제23주간 목요일

제1독서 〈약한 형제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8,1ㄷ-7.11-13

형제 여러분, ¹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²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³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⁴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⁵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시다만 — ⁶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시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⁷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¹¹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¹²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¹³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9(138), 1-3, 13-14, 23-24(◎ 24번 참조)

- ◎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앞이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
-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
- 하느님, 저를 살살이 보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고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저의 길이 굽었는지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

복음 환호송

1요한 4, 12

-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7-3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⁷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²⁸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²⁹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³⁰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³¹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³²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³³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³⁴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³⁵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³⁶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³⁷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³⁸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2일

연중 제23주간 금요일

제1독서 <나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9,16-19.22ㄴ-27

형제 여러분, ¹⁶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¹⁷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¹⁸ 그렇다면 내가 받는 샅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¹⁹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²²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²³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²⁴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²⁵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²⁶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²⁷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4(83), 3.4.5-6.12(◎ 2)

- ◎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 주님의 프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
-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
-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하옵시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 떠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
- 주 하느님은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주님은 은총과 영광을 주시나이다. 흠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아끼지 않으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7,1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9-42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³⁹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⁴⁰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⁴¹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⁴²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3일 토요일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제1독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0,14-22

¹⁴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¹⁵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¹⁶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¹⁷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¹⁸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¹⁹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 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²⁰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²¹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²²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5),12-13,17-18(◎ 17ㄱ 참조)

- ◎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43-4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⁴³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⁴⁴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⁴⁵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⁴⁶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⁴⁷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⁴⁸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⁴⁹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4일 주일 성 십자가 헌양 축일

제1독서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21,4ㄴ-9

⁴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⁵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⁶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⁷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⁸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⁹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78(77),1-2.34-35.36-37.38(◎ 7ㄴ)

-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
-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둬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6-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⁶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⁸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⁹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¹⁰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¹¹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¹³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¹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¹⁵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¹⁶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¹⁷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5일 월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제1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5,7-9

⁷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⁸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⁹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1(30), 2-3ㄱ나, 3ㄷ르-4, 5-6, 15-16, 20(◎ 17나 참조)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시옵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
-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
-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선을 베푸시나이다. ◎

부속가 <아래의 부속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11번부터 시작하여 짧게 할 수도 있다.>

1. 아들예수 높이달린 십자결에 성모서서 비통하게 우시네.
2. 젊고젊은 슬픔고통 성모성심 칼에찔려 참혹하게 뚫렸네.
3. 독생성자 수난하니 여인중에 복된성모 애간장이 다늑네.
4. 아들수난 보는성모 맘저미는 아픔속에 하염없이 우시네.
5. 예수모친 이런고통 지켜보는 우리죄인 누가울지 않으리?
6. 십자가의 아들보며 함께받는 성모고통 누가슬피 않으리?
7. 우리죄로 채찍모욕 당하시는 아들예수 성모슬피 보시네.
8. 기진하여 버려진채 죽어가는 아들보고 애처로이 우시네.
9. 사랑의샘 동정성모 저희들도 슬피하며 함께울게 하소서.
10. 그리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제마음에 불이타게 하소서.
11.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맘속에 주님상처 깊이새겨 주소서.
12. 저를위해 상처입고 수난하신 주님고통 제게나눠 주소서.
13. 사는동안 십자고통 성모님과 아파하며 같이울게 하소서.
14. 십자결에 저도서서 성모님과 한맘으로 슬피울게 하소서.
15. 동정중의 동정이신 성모님의 크신슬픔 저도울게 하소서.

16. 주님상처 깊이새겨 그리스도 수난죽음 지고가게 하소서.
17. 저희들도 아들상처 십자가위 흘린피로 흠뻑젖게 하소서.
18. 동정성모 심판날에 영원형벌 불속에서 저를지켜 주소서.
19. 그리스도 수난공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20. 이몸죽어 제영혼이 천국영광 주 예수님 만나뵙게 하소서.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동정 성모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아들 수난 보는 성모 맘 저미는 아픔 속에 하염없이 우시네(‘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부속가).>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25-27<또는 루카 2,33-35>

그때에 ²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²⁷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6일 화요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제1독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12-14.27-31ㄱ

형제 여러분, ¹²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¹³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¹⁴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28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9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30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31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0(99),1-2.3.4.5(◎ 3ㄷ 참조)

-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이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복음 환호송

루카 7,16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1-17

그 무렵 11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12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13 주님께서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

고 이르시고는, ¹⁴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¹⁵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¹⁶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¹⁷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7일

연중 제24주간 수요일

제1독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31—13,13

형제 여러분, ³¹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 주겠습니다.

^{13,1}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쟁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²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³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⁴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⁵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⁶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⁷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⁸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⁹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¹⁰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¹¹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2-3,4-5,12와 22(◎ 12나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께 노래 하여라, 새로운 노래. 고운 가락을 내며 환성 올려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1-35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1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32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33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34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35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8일
연중 제24주간 목요일

제1독서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11

¹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²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³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⁴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⁵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⁶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⁷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⁸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⁹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¹⁰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¹¹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8(◎ 1ㄱ)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1,28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6-50

그때에 ³⁶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³⁷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³⁸ 예수님 뒤흘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³⁹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⁴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⁴¹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⁴²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⁴³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⁴⁴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⁴⁵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⁴⁶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

⁴⁷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⁴⁸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49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50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9일 연중 제24주간 금요일

제1독서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을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2-20

형제 여러분, ¹²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¹³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¹⁴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¹⁵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¹⁶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¹⁷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¹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¹⁹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²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7(16),1.6-7.8과 15(◎ 15나 참조)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놀라우신 당신 자애를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 주소서.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3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²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³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0일 토요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9월 21일 주일로 경축 이동을 하지 않을 곳에서는 대축일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¹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²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³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4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5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6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7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8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9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6(125), 1-2ㄱㄴ, 2ㄷㄹ-3.4-5.6(◎ 5)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Ⅳ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ㄴ-39

형제 여러분, 31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34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35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³⁶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³⁷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³⁸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³⁹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그때에 ²³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²⁴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²⁵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²⁶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0일

연중 제24주간 토요일

<9월 21일 주일로 경축 이동을 할 곳에서는 평일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35-37.42-49

형제 여러분, ³⁵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 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³⁶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³⁷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⁴²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⁴³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⁴⁴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⁴⁵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⁴⁶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다음입니다.

⁴⁷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⁴⁸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⁴⁹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6(55), 10.11-12.13-14(◎ 14ㄴㄹ 참조)

- ◎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 제가 부르짖는 그날, 그때 원수들은 뒤로 물러가리이다. 하느님이 제 편이심을 저는 아나이다. ◎
- 하느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주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움 없으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
- 하느님, 제가 당신께 드린 서원, 감사의 제사로 채우리이다. 제 목숨 죽음에서 건져 주시어, 제 발걸음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앞에서 걸어가라,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라 하셨나이다. ◎

복음 환호송

루카 8,15 참조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 루카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8,4-15

그때에 ⁴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⁵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 버리기도 하였다.

⁶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다. ⁷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⁸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⁹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¹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¹¹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¹²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 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¹³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¹⁴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¹⁵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1일 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9월 20일 대축일 미사를 주일로 옮겨 지내는 곳에서는 37면 참조.〉

9월 21일
연중 제25주일

〈9월 20일에 대축일 미사를 드린 곳에서는 연중 주일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6-9

⁶ 만나 뵈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⁷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⁹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2-3.8-9.17-18(◎ 18 참조)

-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1,20ㄷ-24,27ㄱ

형제 여러분, 나는 ²⁰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²¹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²²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²³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편이 훨씬 낫습니다. ²⁴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²⁷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사도 16,1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¹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²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³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⁴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⁵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⁶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⁷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⁸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⁹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¹⁰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¹¹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¹² ‘맨 나중에 온 저자

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피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 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¹³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 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¹⁴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 을 주고 싶소.

¹⁵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 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¹⁶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2일 연중 제25주간 월요일

제1독서 〈주님께서서는 비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신다.〉

▣ 잠언의 말씀입니다.

3,27-34

내 아들이여, ²⁷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 라. ²⁸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네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마라.

²⁹ 이웃이 네 곁에서 안심하고 사는데, 그에게 해가 되는 악을 지어내지 마 라. ³⁰ 너에게 악을 끼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공연히 다투지 마라. ³¹ 포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마라.

³² 주님께서서는 비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울곤은 이들을 가까이하신다. ³³ 주 님께서는 악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리신다.

³⁴ 그분께서는 빈정대는 자들에게 빈정대시지만, 가련한 이들에게는 호의를 베푸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5(14),2-3ㄱ.3나ㄱ-4ㄱ나.5(◎ 1나 참조)

- ◎ 주님, 의로운 이는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내리이다.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

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많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복음 환호송

마태 5,16 참조

- ◎ 알렐루야.
○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6-18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16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17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18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3일 화요일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제1독서 <여러 가지 교훈>

▮ 잠언의 말씀입니다.

21,1-6.10-13

1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2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3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이 주님께는 제물보다 낫다.

4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들의 개간지는 죄악일 뿐이다.

5 부지런한 이의 계획은 반드시 이익을 남기지만, 조급한 자는 모두 궁핍만 겪게 된다.

6 속임수 혀로 보화를 장만함은, 죽음을 찾는 자들의 덧없는 환상일 뿐이다.

¹⁰ 악인의 영혼은 악만 갈망하고, 그의 눈에는 제 이웃도 가엾지 않다. ¹¹ 빈정꾼이 별받으면 어수룩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이가 지도를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¹² 의인은 악인의 집을 살피고, 악인을 불행에 빠지게 한다. ¹³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 1.27.30.34.35.44(◎ 35ㄱ 참조)

- ◎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 당신 규정의 길을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을 목상하오리다. ◎
- 저는 진실의 길을 택하였고, 제 앞에 당신 법규를 세웠나이다. ◎
-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이 길을 좋아하나이다. ◎
- 저는 언제나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오리다. ◎

복음 환호송

루카 11,28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9-21

그때에 ¹⁹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²⁰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 드렸다.

²¹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4일
연중 제25주간 수요일

제1독서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 잠언의 말씀입니다.

30,5-9

⁵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⁶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태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분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⁷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⁸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⁹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29.72.89.101.104.163(◎ 105ㄱ 참조)

- ◎ 주님 말씀은 제 발에 등불이옵니다.
- 저를 거짓의 길에서 멀리하시고,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
-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늘에 든든히 세워졌나이다. ◎
- 당신 말씀을 따르려, 온갖 악한 길에서 발길을 돌렸나이다. ◎
- 당신 규정으로 저는 지혜를 얻어, 거짓된 모든 길을 미워하나이다. ◎
- 저는 거짓을 미워하고 역겨워하오나, 당신 가르침은 사랑하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르 1,15

-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6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²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

쳐 주라고 보내시며, ³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⁴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⁵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⁶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5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

제1독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1,2-11

²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³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⁵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⁶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⁷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⁸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⁹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¹⁰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¹¹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쫓아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알렐루야.

복 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7-9

그때에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⁷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⁸ 더러는 “엘리아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⁹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6일

연중 제25주간 금요일

제1독서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㉔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3,1-11

1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2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3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될 때가 있다. 5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꺾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 버릴 때가 있다.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9 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10 나는 인간의 아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11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4(143), 1ㄱ과 2ㄱㄴ드.3-4(◎ 1ㄱ)

- ◎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채,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이시네. ◎
-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헤아리시나이까? 사람이란 한낱 숨결 같은 것, 그 세월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

복음 환호송

마르 10,45 참조

-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8-22

18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9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20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¹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²² 예수님께서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7일 토요일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제1독서 〈먼지가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이 하느님께 되돌아가기 전에, 젊음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11,9—12,8

⁹ 젊은이야, 네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네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¹⁰ 네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고, 네 몸에서 고통을 흘려 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12,1}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²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³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맷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⁴ 길로 난 맛미담이문은 닫히고, 맷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⁵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⁶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기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⁷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⁸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복음 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43ㄴ-45

그때에 ⁴³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⁴⁴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⁴⁵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8일
연중 제26주일

제1독서 〈악인이라도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면,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8,25-2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²⁵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 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나?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²⁶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²⁷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²⁸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5(24),4-5,6-7,8-9(◎ 6ㄴ 참조)

-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1-11〈또는 2,1-5〉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형제 여러분, ¹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²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³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⁴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⁵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⁶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⁸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⁹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¹⁰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¹¹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 음 <만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28-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⁸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만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²⁹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³⁰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³¹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만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³²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9일 월요일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제1독서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였다.〉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9-10.13-14〈또는 묵시 12,7-12〉

⁹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¹⁰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였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¹³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¹⁴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ㄴ.2ㄱㄴ과 3.4-5(◎ 1ㄴ)

-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섰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복음 환호송

시편 103(102),21

- ◎ 알렐루야.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7-51

그때에 ⁴⁷ 예수님께서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⁴⁸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⁴⁹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⁵⁰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⁵¹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30일 화요일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제1독서 〈어찌하여 하느님께서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는가?〉

▣ 욥기의 말씀입니다.

3,1-3.11-17.20-23

¹ 욥이 입을 열어 제 생일을 저주하였다. ² 욥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³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아이를 배었네!’ 하고 말하던 밤! ¹¹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¹² 어찌하여 무릎은 나를 받아 냈던가?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

¹³ 나 지금 누워 쉬고 있을 터인데. 잠들어 안식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 ¹⁴ 임금들과 나라의 고관들, 폐허를 제집으로 지은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¹⁵ 또 금을 소유한 제후들, 제집을 은으로 가득 채운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¹⁶ 파묻힌 유산아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처럼, 나 지금 있지 않을 터인데. ¹⁷ 그곳은 악인들이 소란을 멈추는 곳. 힘 다한 이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

²⁰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영혼이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²¹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건만, 숨겨진 보물보다 더 찾아 헤매건만 오지 않는구나. ²² 그들이 무덤을 얻으면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련만. ²³ 어찌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내에게, 하느님께서서 사방을 에워싸 버리시고는 생명을 주시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8(87),2-3.4-5.6.7-8(◎ 3ㄱ 참조)

- ◎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 주님, 제 구원의 하느님, 낮에도 당신께 부르짖고, 밤에도 당신 앞에서 외치나이다.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
- 제 영혼은 불행으로 가득 차고, 제 목숨은 저승에 다다랐나이다. 저는 구렁으로 떨어지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기운이 다한 사람처럼 되었나이다. ◎
- 저는 죽은 이들 가운데 버려졌나이다. 마치 살해되어 무덤에 묻힌 자 같사옵나이다. 당신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니, 당신 손길에서 떨어진 저들처럼 되었나이다. ◎
- 당신이 저를 깊은 구렁 속에, 어둡고 깊숙한 곳에 처넣으셨나이다. 당신의 분노가 저를 짓누르고, 당신의 성난 파도가 저를 덮치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르 10,45 참조

-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51-56

⁵¹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⁵²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⁵³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⁵⁴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⁵⁵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⁵⁶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